

2020. 12. 14

## 백신 기대 불구 美부양책·브렉시트 불확실성 등으로 가산금리 혼조

장원영 | 책임연구원(3705-6155)

- [유통시장] 백신의 조기배포 관련 기대가 이어지고 있으나,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와 美 코로나19 추가부양책·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亞 크레딧물 가산금리 및 CDS는 혼조

- 亞 크레딧물 가산금리 : IG, HY 혼조 (Bloomberg Barclays Asia USD IG +0.2bp, HY -13.4bp)

- 한국물 가산금리도 혼조(-2bp~+6bp)
- 영국이 화이자·바이오텍스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으며, 미국에서도 백신 긴급사용 승인을 받는 등 백신보급 기대가 이어지는 중. 그러나 美 실업상황 악화 (실업보험청구자수가 시장 예상치인 73만명을 크게 웃돈 85만 3천명으로 3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), 美 부양책과 영국·EU간 브렉시트 협상이 난항인 점 등이 시장 전반에 부담을 가중하면서 변동성 확대에 일조

- 최근 중국 역내 회사채 디폴트 증가와 스리랑카 신용등급 하향조정(B→CCC+, S&P) 등 亞 크레딧 유통시장의 직접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백신보급과 내년의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, 수익률 추구(search for yield)가 지난 10월 대비 강화되면서 여전히 亞 크레딧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은 유지(GS)

- 亞 CDS 혼조 : 일본 -0.3bp, 중국 +0.9bp, 한국 +1.7bp, 말련 +3.5bp, 태국 +0.7bp, 베트남 +0.1bp, 인니 +1.5bp, 필리핀 +2.4bp

- [발행시장] 12월 둘째주 亞 달러채(ex-Japan) 시장은 전주대비 감소한 약 \$41억 발행 (12월 첫째주 \$100억 발행)

- 12월 둘째주는 중국물 8건을 비롯하여 필리핀, 홍콩, 인도에서 각각 1건씩 발행하여 총 41억불 규모 발행. 차주에도 크리스마스, 신년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발행 물량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(Nomura)

&lt;표 1&gt; 주요 亞 외화 공모채권 발행 현황

| 발행기관             | 종류   | 신용등급      | 발행일      | 만기年      | 통화  | 발행액억 | 발행금리 | 주문억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|
| New Metro Global | RegS | BB/BB+/BB | 20/12/08 | 24/12/15 | USD | 4.5  | 4.8  | -   | -  |

&lt;표 2&gt; 한국계 가산금리

|           | 발행액 | 만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19년말 | 12/4일 | 12/11일 |
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외평채'29    | 10  | 6/19/2029                      | 47    | 34    | 32     |
| 산업은행'24   | 5   | 10/1/2024                      | 51    | 39    | 39     |
| 국민은행AT1   | 5   | 7/2/2024(1 <sup>st</sup> call) | 206   | 242   | 248    |
| 한국서부발전'22 | 3   | 7/22/2022                      | 59    | 40    | 39     |
| 한국전력공사'24 | 5   | 6/24/2024                      | 68    | 51    | 51     |

&lt;표 3&gt; 亞 주요국 CDS

|    | '19년말 | 12/4일 | 12/11일 |
|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한국 | 22    | 20    | 22     |
| 일본 | 20    | 16    | 15     |
| 중국 | 31    | 29    | 30     |
| 태국 | 23    | 35    | 36     |
| 인니 | 62    | 68    | 70     |

자료: KCIF 등. 단위: 각 통화 억, bp

- [미국 IG 발행시장] 12월 둘째주 IG발행시장은 전주 대비 감소한 총 \$206.5억 발행(전주 \$250억)

- 위험자산 시장 변동성으로 유통시장 수요는 다소 부진했으나, 발행시장에서는 비교적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총 206억불 발행(시장 예상치: 200억불). 이로써 12월 들어 평균 NIC는 0bp, 평균 유효주문매수 2.9배수, 평균 Compression은 -25.2bp
- 전체 발행분의 87%는 금융업종(12월 전체로는 75% 비중), BBB는 73%, 10-20년 만기 발행분이 43%를 차지(Bloomberg)